

강진군, 백종원과 협업 음식장 활성화 나선다

㈜더본코리아 상생발전 업무 협약 지역 전통시장 외식산업 발전 추진 외식 창업교육 특화메뉴 개발·제공 생활인구 증가 농수산물 소비촉진

강진군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강진읍시장을 전남도 대표 음식타운으로 변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한다.

단순한 시장 활성화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강진의 음식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지역사회발전과 도시재생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 백종원 대표와 면담을 통해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할 사업을 제안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백 대표는 강진군 활성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같은해 7월 강진군을 방문해 강진읍시장과 오감통을 둘러보고 강진군의 향후 발전 방향 및 계획을 구상했다.

이후 9월 강진군과 ㈜더본코리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강진 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해 강진군의 전통시장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강진군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더본코리아와 공동으로 협력, 전국 지자체 9개소 중에 최종 선정됐다.

총 110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강진읍시장과 오감통을 중심으로 한 음식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대상지 확인을 위해 백종원 대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한 차례 더 강진군을 방문, 강진읍시장 및 오감통, 남도음식사관학교 조성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협의를 통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3년의 계획까지 내비쳤다.

백종원 대표와 함께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강진읍시장 수산동 및 오감통 먹거리장터 활성화다.

이를 위해 백 대표는 1차적으로 강진읍

시장 수산동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더본코리아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인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 디자인 개발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새단장한 강진읍시장 수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동 내 빈 점포를 외식업 특성화 부스로 리모델링해 창업 예정자를 모집, ㈜더본코리아에서 외식업 창업 교육과 강진 수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제공해 창업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산동 옆 유휴 공간을 활용한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해 강진 수산물과 백종원 대표의 레시피를 결합한 특화 음식을 사시사철 맛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강진읍시장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진읍시장 종합동 및 수산동을 대상으로 낡은 화장실 리모델링, 내·외벽 도색 작업, 수산동 바닥 정비, 내·외부 조명 설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만든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강진읍시장 주변의 전신주를 지하

로 매설해 주변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로 구역을 정비하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또한 동시에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강진읍시장을 만들 예정이다.

강진군은 ‘남도음식사관학교(외식산업개발원)’ 신축을 위해 기획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후 실질적인 건축물로 조성할 외관 디자인과 내부 구성을 선정하기 위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오는 2026년 개원이 목표다.

이 공간은 강진군 및 전남도 권역의 외식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장소로서 각종 외식업 창업 교육, 강진군 외식업체 컨설팅, 각종 자격증반 운영, 강진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화 음식 메뉴 개발 등 외식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외식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읍시장이 이제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 타운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강진읍시장을 전국의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해남군, 맞춤형 치료 제공

해남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3가구의 난임 부부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받아 한 가정에서 임신이 성공했다. 올해는 6쌍의 난임 부부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방 난임 치료는 난임의 원인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임신에 적합하게 체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 부부다. 다만 한방 난임치료 기간동안 양방 난임수술(체외·인공수정)은 받을 수 없다.

한방 난임 치료 기간은 대상자 확정 후 4개월이며 180만원 한도 내에서 4개월 분량의 한약이 지원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 한의사회에서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한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 방문의 해’ SNS 이벤트 내달 7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군 대표 SNS인 ‘희망 완도’를 통해 조성 퀴즈 이벤트를 3월7일까지 진행한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 홍보 및 다양한 관광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100명에게 완도 대표 특산물인 곱창 김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내용은 완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의 50%(최대 20만원)를 숙박·식당·카페·특산물 이용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개의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퀴즈를 풀면 된다.

참여 방법은 ‘희망완도’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네이버 폼을 통해 정답과 인적 사항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맞춤형 집단 상담’ 참여자 모집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안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하는 청소년 특성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함께 한 걸음’에 참여할 청소년을 오는 3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함께 한 걸음’은 최근 증가하는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대인관계, 감정조절, 사회 적응 어려움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무안을 복합문화센터, 남악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3월8일부터 3주간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과 문의는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454-5284·450-5507)로 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도군 어르신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진도군은 관내 70개 마을 경로당에서 오는 12월까지 주 1회 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아리랑 체조교실 운영

진도군보건소는 관내 어르신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전한 노인 건강문화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아리랑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는 70개 마을 경로당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6개 지구 4135필지 대상

무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올해 무안군은 △신학2지구 △일로의 산1지구 △삼향 맥포2지구 △정계 청수2지구 △현경 평산3지구 △해제 양매1지구 등 총 6개 지구 총 41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사업량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와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전체 3분의 2의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필지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별 경계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없애는 정말 유익한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걷기동아리 지원 추진 10인 이상 구성 걷기동아리 대상

무안군은 건전한 걷기 문화 확산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무안군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걷기동아리로,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향후 무안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걷기 관련 교육, 행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동아리 규모, 사업계획에 따라 100만원 내외의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11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450-5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걷기 운동 습관 형성과 지역 내 걷기 문화를 확산해 국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